

바른 신심과 역사 의식 증장 불국사 어린이 사생대회

조계종 11교구 본사 불국사(주지 성타)가 주최하는 제27회 어린이 그리기·글짓기 대회가 5월 13일 불국사 범영루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종교적 차이를 넘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행사에 참여한 6천 여 어린이들은 선정된 주제에 따라 각각의 재능을 펼쳤다.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은 개막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를 통해 어린이가 여러 분들의 상상력과 숨겨진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불국사 어린이 그리기·글짓기 대회는 27년 어린이들에게 바른 신심과 가치관을 형성시켜주고, 신라문화의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불국사 어린이 그리기 대회 장면

無心으로 펼치는 참회 대장정

수행공동체 무심회, 국토순례 올라

"제방의 운수행각 수행인과 허물어 있는 사부대중은 진참회로 서원하며 오늘 저희들의 자성과 쇄신결사의 서원을 언제나 굳게 믿어 주시고 용기와 서원을 갖도록 격려해 주시며, 흔들릴 때는 준엄과 비판 경책으로 야단쳐 주소서."

최근 도박 사태를 참회하기 위해 범종단 스님 10명이 참회의 국토대장정을 떠났다.

수행결사공동체 무심회(회장 법장)는 5월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입제식을 열고 국토순례를 시작했다.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을 주제로 이뤄지는 이번 대장정은 승가의 일원으로 도박 사태에 대한 참회와 불우이웃을 위한 탁발로 진행된다.

이날 입제식에서 무심회 회장 법장 스님은 선언문에서 "최근 불거진 스님들의 도박 사건을 참회하는 시간도 다지며 승가 일원으로서 수행과 나눔에 매진할 뜻을 발원했다"며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발심 수행에 범종단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행결사공동체 무심회의 참회 국토순례는 총 23일간 720km를 걷는 대장정. 매일 꼬박 27km를 걷는다. 부산을 출발한 무심회의 장정은 경남 김해와 밀양, 대구, 경북 김천과 문경, 충북 충주, 경기도 광주, 서울 봉은사 등을 거쳐 6월 5일 조계사에



수행공동체 무심회 회원들이 5월 14일 현 사태를 참회하기 위한 국토순례를 떠나고 있다.

"도박사태 부끄러운 일"

23일간 720km 탁발순례

6월 5일 조계사에서 회향

이제 마무리된다. 무심회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회향법회와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과 함께하는 무차별회를 함께 봉행할 계획이다.

한편, 무심회는 2년 전 토굴 수행에서 만난 범종단 스님 모임으로 운양사 주지 법장스님, 여여정사 김해포교원 주지 도명스님 등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국토순례를 위해 무심회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김해 덕운사에서 참회기도를 가진 바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위대한 한국불교 위상 재건”

(사)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이취임 법회 봉행

(사)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이하 연합회)는 5월 14일 제10, 11대 회장단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전 회장 정여 스님은 이취임사를 통해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을 이뤄 연합회의 수승한 발전이 있길 바란다"며 발원하고, 연합회기를 신임회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에게 전달했다.

수불 스님은 이어진 취임사에서 "오늘 우리가 접화하는 부산불교 중흥의 불씨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위대한 한국불교를 재건할 것"이라며 "부산의 모든 불교 종단과 수행단체들이 힘을 모아 한국불교의 자부심과 위상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연합회기를 이임받은 수불 스님

이날 법회에는 前 조계종원로의원 정관 스님을 비롯해 종단 연합회 스님과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등 2천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템플스테이로 결혼까지 골인

선운사, 국제커플 1호 탄생

"이제 두 사람은 부부로 맺어 져기에 지금부터는 서로를 믿으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5월 10일 결혼식이 진행됐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호주출신의 그레고 도슨(40·사진 좌)씨와 김윤미(31·사진 우)씨, 이 둘의 인연은 템플스테이로 맺어졌다. 지난 해 12월 서울 한 커피 전문점에 들른 그레고 도슨씨는 김윤미 씨에게 첫눈에 반하게 됐다. 이후 둘은 친구사이로 지내다 올 1월에 김윤미 씨에게 템플스테이 참가를 제안했다.

그레고 씨는 지난해 11월 선운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한국 불교문화에 매료 되게 됐다. 그레고 씨는 "한국 템플스테이에 깊은 감명을 김윤미씨와 꼭 함께 템플스테이를 체험해 보고 싶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그레고 씨는 김씨와 함께 양가 가족과 지인을 모시고 선운사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날 주례를 맡은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은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는 말이 있다"며 "부처님 앞에서 미래를 약속한 만큼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결혼식을 마친 그레고씨는 "템플스테이는 종교이상이므로 살아 숨 쉬는 곳이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두사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결혼식 후 기념촬영 장면

국태민안과 경제발전 기원

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5월 15일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봉축행사 일환인 국태민안과 경제발전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50여 종단 중정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 고승대덕 스님들을 비롯해 이종기 대전 정무부시장, 강창희 국회의원 등 5천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영산대재를 성대히 봉행해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길 기원했다.

이와 함께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제16회 생명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 음악회를 5월 16일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에서 개최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대한불교종정협의회 대법회 모습

5·18 광주항쟁 아픔 부처님 자비로 보듬다

불교계, 5·18항쟁 맞아 행사 다채

5.18광주민주항쟁의 아픔을 추모하는 불교행사가 광주지역에서 다양하게 펼쳐졌다.

광주전남불교NGO연합회(대표 현지)는 5월 17일 광주 원각사에서 5.18전야제와 추모법회 'Free Tibet을 위한 열린 대화마

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티베트독립과 종교자유를 기원하는 자리로 남카 스님(티베트코리아하우스 대표), 이병규(량(량)코리아 활동가), 정의행(평화행동자금 운영위원장)이 대담자로 나서 현 티베트의 상황과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티베트인



5월 17일 광주 원각사에서 열린 5·18 추모법회 'Free Tibet을 위한 대화마당'에서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대표 남카 스님이 현 티베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의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남카 스님은 "2009년 2월 티베트스님 타페이가 분신을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총 16명의 티베트인이 티베트 자유를 외치며 소신공양을 했다"며 "32년 전 계엄군의 총부리 아래 있던 광주의 모습이 지금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수많은 티베트인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체포, 구속되고 있다"며 "광주시민들과 불자들이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전국비구니 작은모임도 5.18희생자 어머니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5월 16일 광주 무각사 교육관에서 묘운 스님과 박희서 조선대 교수 등 '5월 어머니회' 회원 등 100여 명 참여해 5.18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위한 마음명상과 장애를 겪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의 상향극을 진행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도 5월 18일 국립5.18묘역에서 5.18영령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했다. 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망월동 구 묘역 참배객들을 위한 음악회와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9회 전북어린이큰잔치 개최

전북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전북지부는 5월 12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맑고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속에서 어린이들과 함께'를 주제로 제9회 전북 어린이큰잔치를 개최했다.

행사는 전북지역 초등학생 및 학부모 2000여 명이 참가해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 다양한 민속놀이와 불교문화체험, 레크레이션, 장기자랑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불교신도회

한마음 명랑운동회

익산 불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익산불교신도회(회장 박종근)는 5월 13일 지역 스님들과 불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익산불교인 한마음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운동회에는 미륵, 관음, 보현, 문수의 4개 팀으로 나눠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2인3각 이어달리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임원진

고문 : 석인왕 대종사 (재)한국불교 여래종 중정
석무찰 대종사 (재)대한불교 일부선교종 3세종정

원로의원 : 석동산 대종사 대선불교 조계종 중정
석정암 대종사 (사)한국불교 조계종 중정
석혜지 대종사 (사)대한불교 해인종 중정
석동원 대종사 대한불교 연화종 중정
석양명 대종사 한국선불교 대불종 중정
석석봉 대종사 대승불교 삼론종 중정
석혜봉 대종사 (사)대한불교 해동종 중정
석혜우 대종사 한국불교일광종 중정
석보광 대종사 (진)중앙불교 조계종 중정
석덕산 대종사 대한불교천지종 중정

회 장 :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 승가종 중정
이사장 : 석지산 대종사 (사)한국불교 정토종 이사장
상임이사 : 석대웅 대종사 선불교조계종 중정
상임부회장 : 석영월 대종사 대한불교 법사종 중정
부회장 : 석혜륜 대종사 (사)한국호국불교 조계종 중정
부회장 : 석청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중정
감 사 : 석룡담 대종사 대한선불교 조계종 중정
재 무 : 석법정 대종사 조선불교 대선종 중정

이 사 : 석청운 대종사 대한불교 원각조계종 중정
이 사 : 석혜은 대종사 국제선불교 조계종 중정
이 사 : 석일강 대종사 대한선불교 천우종 중정
이 사 : 석강암 대종사 한국불교 입계종 중정

이 사 : 석진공 대종사 대한불교광명 조계종 중정
이 사 : 석법홍 대종사 (재)세계불교 미륵대종 중정
이 사 : 석일암 대종사 한국불교 근본 해동종 중정
이 사 : 석무영 대종사 대한불교반야선종 중정
이 사 : 석현불 대종사 우리불교조계종 중정
이 사 : 석청암 대종사 충남불교조계종 중정
이 사 : 석법정 대종사 대원불교조계종 중정
이 사 : 석정안 대종사 한국불교환인종 중정

사무총장 : 이봉 서병열 일부신문사 대표
기획실장 : 건진 전성배
사 무 장 : 배상광

※ 미가입 종단 중정스님께서는 필히 입회 하시어 본회에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1995년 창립 사단법인으로써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불교 발전을 위하여 종단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면서 회원종단 행사는 물론 애경사시 중정스님 전원이 동참하여 법석을 장엄하게 하며 화합 및 조화를 모두 보내주고 특히 회원(중정)열반시 100만원 상당의 위로금과 회원(중정)전원이 동참하며 조화를 모두 보내기로 정관내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4천평 부지에 복지회관과 대웅전을 건립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3-6 전화 : (042) 285 - 1227

사무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7호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02) 756 - 1227 팩스:774-1487 홈페이지 : http://www.jongjeong.com